

KREI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NEWSLETTER

2004년 10월 27일 발행(월간·비매표) 등록 서울 라-02663(1982.4.29) 발행·편집인 이정환(발행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02)3299-4000/인쇄인·김재국/(인쇄·(주)무위사)

동북아시아 지역 식량안보 및 식품안전성 제고 논의

中, 웨이하이시에서 2회 동북아농정연구포럼 개최



제2회 FANEA 국제심포지움이 10월 8일과 9일 중국 웨이하이시 산둥대 문교에서 개최했다.

지난해 우리 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동북아 농업협력을 위해 발족한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이 올해는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주최로 10월 8일과 9일 양일간 산둥성 웨이하이시 산둥대학교 문교에서 제2회 FANEA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심포지움 개최식에 이어 첫 세션은 '동북아 식량안보정책'이란 주제로 우리 연구원 이정환 원장 사회로 열려 중국국무원 슈 사오칭 박사가 '식량안보정책과 유통체계 개혁'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식량확보 위한 관리기술 개선 필요

이어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 이토 마사토 박사가 '일본의 식량안보 문제와 정책 방향'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우리 연구원 임승수 연구위원은 '한국의 식량안보 관심과 정책반응'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임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식량안보 상황이 취약

한 개도국에서는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서 먼저 시장의 비효율성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수확전후 관리기술과 운송, 보관 등 시설확충, 조기경보체계 등의 적절한 관리기술의 개선을 주장했다.

선진국 식품안전관리 벤치마킹해야

심포지움 제2세션은 '품질보증과 식품안전'이란 주제로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 나시오 다케시 소장 사회로 열렸다. 첫 발제는 중국 농업부 시장경제정보과 슈 사오준 과장이 '중국의 농업 표준화 개발의 현황과 쟁점들'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중국의 '무공해식품행동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2005년까지 농산물품질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 타치카와 마사시 박사가 '유전자변형곡물 국제 식품체제에의 영향'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우리 연구원 최지현 연구위원은 '한국의 식품안전체계'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앞으로 한중일 무역도 세계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계변화의 흐름에 따라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식품안전위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튿날 심포지움은 중국 농업경제연구소 주시강 박사 사회로 '동북아 무역모형과 데이터베이스'란 주제로 열려 중국 농업경제연구소 리우 사오혜 박사가 '동북아 농업교역문제 연구에 대한 토론'이란 제목으로 첫 발표를 했다.

3차 포럼, 내년 10월 일본에서 개최

우리 연구원 권오복 부연구위원은 '동북아 국가의 농업무역 흐름과 쟁점들'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한중일 농산물 무역 흐름을 분석한 결과 한일은 만성적인 적자국인 반면 중국은 농산물 무역 흑자국으로 나타났으며 무역의존도는 한일 한중, 중일 순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 우에바야시 야스유키 박사가 '세계 쇠고기 무역의 구조 변화와 그 영향: AGIINK 모형을 사용한 시나리오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날 심포지움을 마치고 3개 연구기관장과 간사들이 회의를 거쳐 향후 3개 연구기관은 동북아농정연구포럼 홈페이지(www.fanea.org)를 통해 긴밀하게 교류하고 공동 연구를 더욱 내실 있게 수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년 10월 중순에 일본에서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 주최로 제3차 FANEA 포럼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함께 가는 미래, 더 높은 곳을 향하여”

2004년 직원수련회 10월 15일, 16일 가저



연찬회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이 특강을 했다.

우리 연구원은 내실 있는 연구원 운영 방안 모색과 직원간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 2004년 가족수련회를 10월 15일과 16일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미리내캠프에서 “함께 가는 미래, 더 높은 곳을 향하여”란 주제로 가졌다.

전 직원 함께 뛰며 일체감 가저

이번 2004년 가족수련회는 지난해에 이어 전직원이 연구원을 벗어나 양평의 미리내캠프에서 1박을 하며 첫날은 “우리는 한 가족, 함께 뛰자”라는 주제로 체육행사를 갖고, 밤엔 “우리는 한 가족, 손에 손잡고”란 주제로 모닥불 파티를 가졌다. 또한 이튿날은 “우리는 한 가족, 더 높은 곳을 향하여”란 주제로 연찬회를 개최했다.

수련회 첫 날 체육행사는 미리내캠프 대운동장, 잔디운동장, 잔디축구장에서 네 팀으로 나눠 축구, 배구, 발야구, 줄다리기 등을 하며 체력을 다졌고, 잔디운동장에서 다양한 단체게임을 하며 직원상호간에 친목을 다졌다.

그리고 밤에는 대운동장에서 ‘우리는 한가족’이란 화이어레티에 점화식을 하며 손에 손잡고 우리는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즐겁고 의미 있는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은 조식을 마치고 은하수홀에 모여 우리 연구원이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강연과 CI(Corporate Identity) 설명회 등 연찬회를 가졌다.

이날 첫 강사인 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

박사는 ‘버려야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검색사고에 길 들어 있는 우리의 사고를 바꿔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박사는 “농업만으로 농업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주장하며 “우리 농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0.5차 산업을 더하는 사고로 농업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업정책연구소 이현목 소장이 “우리 농업·농촌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농정 연구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향후 우리 농업·농촌을 살릴 수 있는 내실 있는 연구를 당부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율적인 연구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의·자율적 연구분위기 조성돼야
세 번째 강사인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슈 선점으로 연구원이 매사에

이슈를 선점해 정부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이라고 밑문을 열었다. 좌 원장은 “우리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데 있다”고 진단하며 “모든 문제는 자기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좌 원장은 “성공하는 세계관은 수평적 세계관이 아닌 수직적 세계관으로 열심히 하면 위에 오르고 게으르면 아래에 머무르는 것이 당연하므로 연구원 운영도 이같이 해야 하며 연구에 있어서 자율적인 연구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태희 부연구위원이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 온 연구원 CI 추진결과와 연구원 MI(Mind Identity)를 발표했다. 또한 연구원 CI 제작 업체인 디자인파크 정종원 이사가 CI 일반적인 이론과 연구원 CI 추진 현황,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열정·탐구정신 바탕으로 일해야

연찬회를 마치며 이정환 원장은 “지난해 수련회를 통해 나누었던 연구원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올해 CI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우리의 내외부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직원들에게 “이제 부정적인 사고를 버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연구원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열정과 탐구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직원들이 더욱 창의력을 갖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서별 간담회 통해 다양한 의견 개진

우리 연구원 이정환 원장은 지난 9월 초순부터 부서별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연구원 운영에 대해 격의없이 토론했다.

지난달 6일에는 농업관측정보센터 직원들과 본관 4층 회의실에서, 15일에는 농산업경제연구센터 직원들과 대회의실에서, 22일에는 농정연구센터 직원들과 썬크가든에서 간담회를 가져 연구원 현안과 향후 발전을 위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대화를 나눴다.

또한 10월 1일에는 자료정보지원실 직원들과 연구동 3층 회의실에서, 6일에는 산림정책연구실 직원들과 원장실에서, 22일에는 농촌발전연구센터 직원들과 중회의실에서 각각 간담회를 갖고 연구원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원장은 앞으로 나머지 부서와도 간담회를 가져 연구원 현안과 연구원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해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식량자금을 목표 설정 위한 토론회 개최

우리 연구원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특위)는 10월 14일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식량자금을 목표설정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대 김철호 교수 사회로 열려 우리 연구원 최지현 연구위원이 '식량 자금을 목표설정의 방향과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최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식량자금을 관련 정책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10년 내에 식량자금을(칼로리 기준)이 현재 47%에서 40%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식량자금을 목표 설정은 국민에게 식품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시키며 국내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공감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식량자금을 설정의 기본 방향을 장기적인 농정 청사진에 따른 자금률 검토,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자금률 목표설정 추진, 실현 가능한 자금률 목표 설정, 시장 개방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한 목표수립 작업 추진,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한 목표 설정 등으로 나눠 제안하며 식량자금을 목표설정을 위한 로드맵(안)을 제시했다.

이어 전국농민회총연맹 박용두 정책위원장이 '식량자금을 법제화의 방향과 과제'란 제목으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탁명구 사무총장이 '식량자금을 필요성과 추진방향'이란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날 지정토론은 김지혜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김현수 농림부 식량정책과장, 문현경 대한영양사협회 감사, 박동완 농협중앙회 부장, 박영배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태호 서울대 교수, 홍준근 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쌀협상 자료방 개설

우리 연구원은 쌀관세화 관련협상에 대한 각계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월 26일자로 홈페이지에 '쌀협상자료방'을 개설했다.

이 자료방에는 쌀관련 '연구자료', '원내논단', '원외논단' 등으로 메뉴가 구성되었다. '연구자료'에는 쌀협상과 관련해 연구원이 그동안 발표했던 30여건의 각종 보고서와 세미나 공청회 자료 등이 게시되어 있으며, '논단'에는 원내 연구진이 중앙언론과 주요 농업관련 전문지에 게재했던 기고, 칼럼 등 논단과 연구원 이외의 논객들이 주장한 논단도 일자별로 게시하였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사인 쌀협상과 관련해 각종 연구자료와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도서관시스템 활용제고

우리 연구원 전자도서관시스템이 개발되어 가능한지 1년 4개월이 지나면서 날로 활용도가 제고되고 있고 잘 정착되어 가고 있다.

연구원 전자도서관시스템은 연구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쇄형태의 자료와 전자자료를 한 화면에서 검색하여 실제 원문까지 한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계의 핵심이다. 이용자들이 어디에 무슨 자료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더라도, 정확한 키워드나 주제 분야를 입력하면 보고서, 단행본, 국내외 연구논문, 초록, CD ROM 등 해당하는 모든 자료가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연구원에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학술지 논문들도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다.

또한 CD-ROM과 같은 비도서 매체의 경우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검색한 다음 자료실에서 대출해 이용했다. 그러나 이제는 자주 사용하는 통계(CD)의 경우 검색결과 화면에서 바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CD를 바로 자기 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연구원 전자도서관의 이용에 편리한 기능과 이용시 주의할 사항, 효과적인 검색방법 등 활용방법을 연구원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과 벤처농업인의 역할' 강좌 열어



'친환경농산물의 유통방향'이란 제목으로 허길행 부원장이 강의했다.

우리 연구원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는 10월 13일 경북 의성에 위치한 한국인칼균연구소 교육장에서 '친환경농업과 벤처농업인의 역할'이란 주제로 제3회 벤처농업 활성화 전문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전국에서 150여명의 벤처농업인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개회식에서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장인 허길행 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벤처농업이 우리 농업을 견인해 가는 역할을 담당해 주길 당부하며 이어 '친

환경농산물의 유통방향'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또한 친환경농업기술강의는 친환경농업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해 관심을 끌었고, 우리 연구원 김창길 연구위원이 '친환경농업과 벤처농업인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이날 친환경농업기술강의는 의성군농업기술센터 하현태 과장이 '친환경농업마늘 주아를 이용한 종구생산'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으로 시설채소를 재배해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조성찬 농업인과 친환경농법으로 단감과 복숭아를 재배해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임종용 농업인은 그들이 경험한 농사 정보를 공개했다. 이어 대구대학교 유관식 교수가 기능성 농산물에 대해 강의했다.



농지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박 석 두 연구위원

현행 농지제도 개편의 필요성은 농지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농지소유·임대차제도와 농지보전·전용제도의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농지제도 개편의 필요성

먼저, 헌법과 농업·농촌기본법은 경자유전 원칙을 명시하고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농지임대차를 금지한다고 하였지만 이는 현실에서 이미 붕괴된 상태이다. 2000년에 임대차농지가 전 농지의 43.6%, 임차농가가 전 농가의 72.3%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농지임대차가 확대된 것은 농지가격이 농업소득으로 농지를 매입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상승한 반면 임차료는 지가에 대한 금리 수준 이하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농지임대자는 농지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기 때문에 지가차익을 취득하려고 농지를 소유한다. 농지임차자는 임차농지에서의 토지순수익이 임차료의 2~3배에 달하고 임차료가 지가에 대한 이자액보다 낮기 때문에 매입보다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며 규모를 확대할수록 단위면적당 생산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임차를 통해 경작규모를 확대하여 왔다. 경자유전 원칙은 농지가격이 수익지가 이상으로 높고 임차료가 토지순수익보다 낮은 현실에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작자에게 유리하지도 않은 것이다.

둘째, 농지보전 및 전용제도가 불충분하여 국토의 난개발과 농지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3ha 이상 규모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야만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하 규모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제에 의해 필지별 소규모 분산개발을

허용하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물론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도 농업용·공공용 시설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또는 농지전용허가를 통해 필지별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리하여 2000~2002년에 농지전용허가 면적은 1건당 평균 0.2ha의 소규모였으며, 농업진흥지역 농지 7,161ha가 전용되었다. 필지별 소규모 분산 농지전용은 계획적·집단적 농지전용에 비해 인접농지와 농촌 생활환경 및 자연경관을 오염·훼손시키는 원인이 되며 농지전용 기대를 높임으로써 비농업인의 소규모 농지 소유와 농지전용을 확대하고 농지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농지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

농지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은 농지소유와 임대차를 자유화하는 대신 계획적·집단적 농지전용제도를 확립하는 것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자유전 원칙은 현실에서 붕괴된 상태일 뿐 아니라 유지할 수도 없으며 경작자에게 유리한 것만도 아니다. 경작자가 지가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농지를 매입해야 하겠지만 농업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임차를 통해 경작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생산비 절감과 토지순수의 면에서 농지매입보다 유리하다.

둘째, 농지를 둘러싼 대립은 소수의 지주계층과 다수의 소작농간의 농업수익을 취득하기 위한 계층 간 대립에서 다수의 비농업인과 농업인간의 농지전용을 둘러싼 부분간 대립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농지제도의 원칙도 지주적 토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경자유전 원칙에서 무분별한 농지전용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농지전용 질서의 확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제도적으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를 자유화하더라도 계획적·집단적 농지전용제도와 농지전용이익 환수제도 및 농지보전에 대한 보상제도 등 농지보전·전용제도를 체계적으로 갖춘다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농지소유 및 임대차를 완전 자유화하고 농지전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순서를 밟아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농지보전 체계와 전용 질서를 확립하지 않고 농지소유 및 임대차를 자유화할 경우 부작용과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크며, 둘째, 농지제도의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기본법과 농지법 등 농림부 소관 법률 외에 헌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과 타부처의 법률 등을 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농지제도 개편의 단계별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는 농지제도 개편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농지은행제도와 농지관리기구를 도입하여 이를 통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임대차를 허용하며, 농지보전에 대한 보상제도와 농지전용이익환수제도를 강화한다.

제2단계는 국토관리 및 계획체제 등 농지보전·전용 관련 제도의 개선으로서 용도지역제와 개발행위허가제를 개선하며 궁극적으로 용도지역제를 계획허가제로 전환하는 한편 개발이익환수제도를 강화한다.

제3단계는 농지 소유 및 임대차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완전 자유화하되, 농지의 형상 및 소유권의 세분화를 방지하는 조치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농지소유와 임대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최근의 쌀 협상 동향과 전망

서진교 연구위원

10월 들어 쌀 협상의 행보가 확연히 달라졌다. 지난 5월 협상 개시 이후 8월까지의 쌀 협상은 그야말로 상대방의 기본 입장을 탐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9월에 접어들자 쌀 협상은 비로소 관세화 재유예의 조건을 놓고 구체적인 수치가 오고 가는 본격적인 협상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던 쌀 협상이 최근 들어 그동안 상당히 견해 차이를 보였던 상대국들의 입장이 꽤나 좁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쌀 협상의 시한을 생각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도 어려운 입장이지만 상대방들도 가급적 연내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협상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서는 최근의 쌀 협상 동향을 중심으로 향후 전개될 협상 전망을 살펴본다.

협상국간 입장 차이, 크게 줄어

9월 들어 정부는 쌀 협상 대표단을 보강하여 미국, 중국, 태국 등 소위 핵심 3개 협상 상대국은 기존 협상대표팀이 협상을 전담하도록 하였고, 호주 등 나머지 6개 국가와의 협상은 농림부 통상 정책관을 중심으로 또 다른 쌀 협상팀이 구성되어 전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0일 태국과의 3차 협상과 호주와의 2차 협상을, 9월 22일에는 중국과의 5차 쌀 협상을 가졌으며, 뒤이어 9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인도, 이집트, 캐나다 등과 제네바에서 쌀 협상을 마쳤다. 특히 미국과는 9월 30일 5차 협상에 이어 10월 19일 6차 협상까지 끝냈으며, 태국과도 10월 5일 4차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러한 일련의 연속된 쌀 협상을 통해 협상 상대국들의 구체적인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그 동안 보여 왔던 상대국들의 요구 수준의 차이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우선 관세화 재유예에 따른 의무수입 물량의 증가에 대하여 차이를 보였던 핵심 이해당사국들의 요구 수준이 약 8~9% 선까지 근접하여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어 협상 상대국간 완전히 일치된 견해에 도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측된다. 유예기간에 대해서도 대략 10년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10년은 너무 길어 5년 이후 다시 협상을 하자는 의견도 있어 유예기간은 좀더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아있다.

한편 수입쌀의 민간유통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는 민간유통을 허용하는 선까지 합의에 도달한 느낌을 받고 있으나, 구체적인 물량에 있어서는 여전히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급적 최소한의 물량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에 있어서는 입장차이가 있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협상 상대국이 주장하는 시장점유율 문제는 협상 초기에 비해 상당히 진전되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1월, 최종 선택의 순간이 될 듯

쌀 협상은 이제 한 두 차례의 협상만 더하면 실무급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은 아마도 장관급 이상 수준에서의 고위급 접촉이 예상되고 있다. 실무선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마지막 쟁점을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풀고자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무급 회담에 이은 고위급 협상이 이어지면서 협상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전제에서 볼 때 쌀 협상의 최종 결과는 11월 중

에는 상당 부분 공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쌀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 이후 단계는 우리의 최종 선택이 남아 있다. 관세화 유예에 대한 협상 결과를 보고 관세화를 다시 한번 유예할지 아니면 관세화로 전환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최종 선택의 순간인 것이다. 쌀 협상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쌀 농가는 물론 도시의 소비자까지 포함하여 각계의 다양한 논의와 견해가 수렴되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결정을 해야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끝내야 한다. 최종 합의문 작성과 협상 상대국의 서명 기간을 고려한다면 최종 합의문은 아무리 늦어도 겨울 휴가가 시작되는 12월 20일 이전에는 WTO 사무국에 비밀문서의 형식으로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리에 입각한 냉철한 판단이 중요

관세화와 관세화 재유예의 판단은 냉철한 이성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쌀 재배 농가의 입장에서 그들의 소득 손실은 물론 우리 쌀 산업의 중장기 발전방향과도 모순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하고, 동시에 농업·농촌이 갖는 다양한 다원적 기능의 유지 발전도 최종 결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떠한 방안이 쌀 수입량을 줄일 수 있고, 국내 쌀 시장의 안정을 가져와 쌀 농가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가 1차적인 판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눈앞의 당장의 이익만을 좇다가 훗날 우리 쌀 산업을 불구로 만드는 잘못된 결정은 최소한 피해야 한다. 쌀 농사가 10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며 우리 농업 농촌도 계속 유지·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ㄴ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규제완화

그동안 유전자변형 농작물(GMO)을 둘러싸고 주요 생산국과 수입국간에 서로 대립되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환경면에서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FAO는 세계 기아문제 해결을 위해 GMO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GMO를 둘러싼 최근 규제완화 동향을 살펴본다.

두 가지 대립되는 견해 계속

GMO는 유전자조작 기술을 사용하여 개발된 품종으로서 일반적으로 수량이 많은 데다 병충해에 저항성이 강하고, 또 가뭄이나 이상기후에 강한 특성이 있다. 이에 대해 2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하나는 생산자의 소득문제나 개도국의 기아문제, 환경문제 해결에 유익하다며, 개발과 재배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또 자연에 전이하여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부정적인 입장으로서 신규 등록과 재배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이 GMO에 대한 견해가 GMO 수출국은 긍정, 수입국은 부정이라는 입장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EU와 중국은 새로운 GMO 개발이나 수입을 규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FAO는 GMO가 인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 건강에 나쁘지 않으며, 또 비료나 농약을 적게 투입하기 때문에 환경에도 유익하다면서 세계 영양부족인구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하고, 단지 자연으로의 유전자 전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대립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그린피스나 옥스팜과 같은 환경단체, 세계구호단체는 여전히 인체나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더구나 기아는 식량부족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독점, 당사자의 신용부족 등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입증되지 않은 위험성을 가지고 현실적인 필요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U와 중국이 GMO 수입규제 완화

FAO는 세계 기아인구 반감운동을 전개 중에 있다. 1990년대 초반 세계기아인구는 8억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었다. 이것을 2015년까지 4억명으로 줄이는 운동이 소위 FAO의 '기아반감운동'이다. 그런데 감소하던 기아인구는 1990년말부터 다시 증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FAO 입장

에서도 수량 많은 GMO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FAO 이외에도 GMO를 둘러싼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 먼저 EU의 GM 옥수수 수입 및 판매 허용이다. EU는 1998년 이후 GMO 신규등록을 금지하고 있었다. 최근 영국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규제를 해제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농장에서 시험재배에서 유해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옥수수에 한하여 재배기준이나 품종을 정하여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9월초 GM 옥수수 종자 17종에 대해 EU 25개 기행국에 판매를 허용하였다.

EU는 GMO에 대해 금지조치를 허용하되, 단지 모든 GMO와 GMO 가공품 혼합률이 0.9%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표시제 규정을 사전에 마련해두고 이를 해제하는 수순을 밟고있다.

또한, 중국도 2002년부터 GMO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금년 4월말에 이를 철폐하고, 미국의 몬산토가 생산하는 GM 소맥, GM 옥수수, GM 면화 등을 비롯한 5개 품종에 대하여 수입을 허가하였다. 허가기간은 면화가 2009년까지 5년간, 대두와 옥수수는 2007년까지 3년간이다. 허가 배경은 미국의 수입장벽 해제요구와 중국국내의 식량부족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몬산토사는 소맥개발 중지결정

한편, 세계적인 GMO 종자 개발회사인 미국의 몬산토사가 GM 소맥 개발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몬산토사는 영국이나 EU에서 규제완화와는 별도로 지난 5월 GM 소맥개발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유는 소비자의 저항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옥수수와 대두는 주로 식용이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데 대하여 소맥은 인간이 직접 소비한다. 그만큼 소비자의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 축소와 개발 중단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앞으로 GMO에 대한 논쟁에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지난해 세계 전체의 GMO 식부면적은 6,770만 ha에 달하고, 더구나 전년도에 비해 15%나 증가하였다. 동시에 EU와 중국 등에서 규제완화, 그리고 FAO 보고서를 계기로 환경단체와 소비자의 저항감이 고조됨에 따라 논란은 확산될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농산물 수입국 입장에서 수입관리를 철저히 하되, GMO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EU와 같이 우선 표시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부여한 후, 신규인가 절차 또는 규제완화 등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 <김태근 연구위원>

쌀 협상, 상당부분 의견접근...11월말 합의안 공개 전망

TRQ 증량 수준 차이 1~2%까지 접근 관측

10월 들어서도 10월 5일 태국, 10월 19일 미국 등 주요국과 쌀협상이 속개된 가운데 이전까지의 협상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한 의무수입물량(TRQ) 증량폭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일정부분 접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으며 정부는 고위급 회담을 가동하는 등 협상 마무리를 위한 수순을 밟은 뒤 11월말 경 합의안을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쌀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양상을 보였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시장개방폭의 차이가 1~2%로 좁혀졌으며, 태국도 그동안 독자적인 주장을 접고 다른 협상국과 비슷한 수준에서 논의에 응하는 등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졌다고 밝혔으며, 언론들은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쌀수입 10년 유예, 의무수입물량 증량 폭 8% 선으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와 언론 분석은 쌀 최대생산국인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의무수입물량 증량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 등이 고위급 회담에서 거론할 가능성이 있는 '타품목 연계' 전략을 구사할 경우 협상타결이 난관에 부딪힐 수 있어 협상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협상과정에서 주요 상대국들은 관세화 유예 조건으로 최소 8~9% 수준의 TRQ 증량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관세화 개방시 예상되는 증량규모보다 더 큰 폭의 개방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언론은 우리 정부가 6%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따라서, 현재까지 협상과정에서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이루어짐으로써 정부는 협상을 매듭짓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가동시켜 11월 말경에는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곡물자급도 10%p 제고에 연간 1조~5조원 필요”

KRFI가 농특위와 공동으로 10월 14일 주최한 식량자급률 토론회에서 KRFI 최지현 연구위원은 국내 콩 생산량을 20만t 추가로 늘려 곡물 자급률(사료용 포함)을 1%포인트 끌어 올리는데 드는 비용이 4천997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또, 밀이나 콩, 옥수수 생산을 늘려 곡물자급도(중량 기준)를 10%포인트 높이는데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1조2천980억~4조9천997억원으로 지난해 이들 곡물 전체 수입액의 최대 2배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으며, 현재 진행중인 쌀 협상이 관세화 유예 쪽으로 결론이 나고 일부 밥쌀용 판매가 허용될 경우 쌀 자급률은 대략 90~9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는 곡물자급도가 지난 70년 80.5%에서 작년 26.9%로 급락하고 있다며 정부가 5년 주기로 자급률 목표를 설정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역농업 클러스터 내년 시범사업 개시

농림부가 연내 10개 지역을 지역농업 클러스터로 선정, 내년부터 1개 지역당 약 20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9월 21일 밝힘에 따라 산 학 연 연계를 통해 지역 농업과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이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오는 2013년까지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에 총 1조 7천168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있으며 전담 조직으로 지역농업지원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내년 예산중 농어촌의 소득기반 구축 등 지자체의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이 3조3천억원 규모로 배정되는 등 지역개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

한편, 농림부는 지자체 농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율농정 추진 역량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지자체 스스로 자율적인 농업정책의 추진을 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도시민 제한적 농지소유 허용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월 10일 도시민 농지소유 허용논란과 관련, '경자유전의 원칙'을 최대한 지키되 도시민들에게도 제한적으로 농지 소유와 임대를 허용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침체된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주는데 무게를 두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들이 설명했다.

당정은 그러나 투기와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우량농지는 도시민 등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없게 하는 등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또한 도시민이 소유한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산하에 설치될 농지은행을 통해 전업농에 5년 이상 장기임대할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동원 전문연구원>

농정여론정보 6,700여건 DB 구축

우리 연구원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농업관련 보도자료 등 여론정보를 DB화하고 이를 홈페이지(www.krei.re.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데, 올들어 10월 현재 각종 농정여론정보 6,700여건이 DB로 구축돼 연구자 뿐만 아니라 농업계와 비농업계 등 농업정보를 필요로 하는 각계각층에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최근 DDA협상과 FTA, 쌀제협상 등 농업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제기되는 상황 속에 지난 5월부터 원내에 여론정보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여론정보팀에서는 각종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와 언론 보도동향 분석, 그리고 현지통신원과 모니터링 운영 등 농업과 관련한 입체적인 여론정보 수집과 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론정보팀에서는 매년 말 연구원의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농업인 의식구조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농민들의 여론이 차기년도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업정책 수립과 국회의 의정활동에도 참고자료로 제공하며, 각종 농정현안 여론조사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또, 16개 일간지와 TV 등에서 농업관련 여론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데, 이 같은 정보는 '농정여론동향' 코너에 농업관련 주간동향, 연구원 관련기사, 중앙언론 보도기사, 오피니언, 농정이슈, KREI 논단 등 6개 분야별로 분류돼 자료가 축적되고 있어 원하는 여론정보를 검색을 통해 주제별로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중앙일간지 '일일보도동향'은 매일 전 일간지에 보도된 농업관련 기사를 찾아 게시하고 요약정보를 제공해 농업에 대한 여론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농업관련 주간 여론동향'은 한 주간의 농업계 이슈와 쟁점을 요약해 정리한 자료로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메일링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는데 농업유관기관과 농민단체 등에서 주요 동향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일일보도동향과 주간여론동향 등을 메일로 서비스 받기 원하면, 여론정보

팀(☎ 02 3299 4227, 4228, dongweon@krei.re.kr, frog78@krei.re.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쌀관련 농정연구속보 2권 발간

우리 연구원은 쌀 협상 시한과 2004년 쌀 수급 및 가격전망 등 2권의 농정연구속보를 발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에 임승수 연구위원은 쟁점이 되고 있는 '쌀 협상 시한에 관한 견해 분석'이란 제목으로, 또한 김명환 선임연구위원은 '2004년산 쌀 수급 및 가격전망' 제목으로 각각 농정연구속보를 집필·발간했다.

농정연구속보는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을 볼 수 있다.

연구원 인사

△(승진) 연구위원 김태근, 서진교, 장철수, 정인걸, 1급관리원 박형삼, 전문연구위원 정학균, 허주녕, 초청전문연구원 김상현, 2급관리원 한우석

△(보직) 행정실장 직대 김광진, 총무이사팀장 옥치복, 재무회계팀장 김병철

연구진 동정

△이정환 원장은 10월 5일 전북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유승우 연구위원은 10월 5일 충북대학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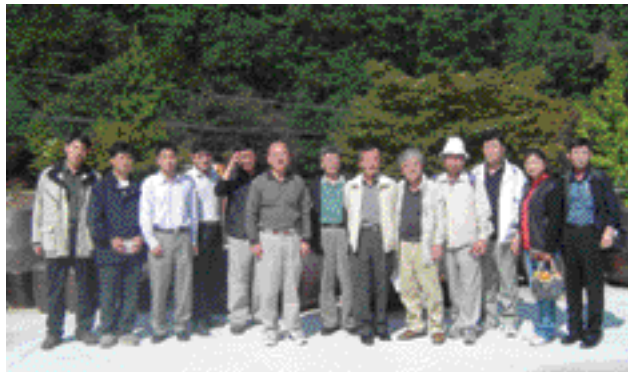
△박대식 연구위원은 10월 4일 구례농협이 연 여성복지사업 전문가 과정에서 특강을 했다.

△김홍상 연구위원은 한국토지법학회 설립 20주년을 기념회 10월 9일과 10일 부산대학교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한국 농지제도의 현황과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박문호 부연구위원은 10월 5일 고양선인장시험장에서 개최한 강연회에서 '지역농업클러스터와 겸업연구관 사업 추진 방향'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김철민 부연구위원은 10월 11일 농특위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주요선진국의 식품산업 지원제도'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우리술포럼 명주순례투어 가져



우리술포럼 회원들은 충남 서천군의 한산소곡주 제조장을 방문했다.

연구원 우리술포럼(대표: 이동필)은 회원간의 친목을 다지고 현장 견문을 넓히고자 제1회 명주순례투어를 가졌다.

이번 투어에는 연구원 직원 뿐만 아니라 농림부, 한살림, 대구한외대 등 우리술에 관심을 가진 13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충남 서천군의 한산소곡주(대표: 나장연) 제조장을 방문, 백제왕조 때부터 1천5백년 이어져 내려온 한산소곡주의 유래와 제조공정, 제조비법, 향

후 발전 계획 등에 대한 관련 얘기를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명주순례투어는 한산소곡주제조장 뿐만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한산모시박물관, 가을견이가 한창인 서천들판, 장항항

과 군산항사이의 금강하구 등을 견학했고, 장항항에서 서천의 명물 전어를 한산소곡주와 함께 맛 볼 기회도 가졌다.

우리술포럼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술에 관심을 가진 회원들과 함께 명주현장투어를 가져 우리의 전통문화와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전통민속주 개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민속주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 기회도 가질 계획이다.